

“창작활동 꾸준… 잊혀지지 않은 작가로 남을 것”

‘한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서 대통령 표창 허진 교수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 발휘 등 공로 평가
“사별한 집사람이 주는 상”… 오광수 기념집 수록도

전남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허진 교수(한국화가·전남대 미술학과)가 정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창작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등 자기 작품세계 연마는 물론이고, 미술발전에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문화예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2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자인 허진 교수에 대한 시상 등 각 분야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 세계를 일군 장애인예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돼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특히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이면에는 더 많은 장애인예술인들의 뛰어난 성취를 공유하며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장애인예술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허진 교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허진 교수는 이번 수상에 앞서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에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이지만 4년전 사별한 집사람이 준 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잊혀지지 않은 작가로 남으라는 주문이다. 모든

영광을 집사람에게 돌린다”며 “이 상을 계기로 어렵게 활동하는 분들이 하나 하나 노력하면 장애가 있지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허진 교수는 그동안 야생동물과 인간, 인공물의 이미지를 한데 등장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찰하고 현대인이 잊고 있는 본성(자연)을 일깨우는 작업을 펼쳐왔다. 그가 그려내는 세계에서 실루엣으로 표현된 인간과 섬세하게 묘사된 동물, 그리고 의외성을 안은 채 등장하는 인공 사물은 미묘하게 공존한다. 작업이 쌓여가면서 그의 화풍은 야생과 문명이 질서와 혼돈 속에 조화를 이룬, 특별한 영토를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허진 교수는 서울대 예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1990년 개인전 ‘목시’로 데뷔한 이후 제38회 개인전과 600회에 이르는 단체전에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간과 문명의 경계 탐구 및



‘목시’

현대 풍경자를 투영한 작품들을 출품해 DB금융투자과 갤러리 초이에서 잇따라 전시를 열었으며, 올 6월 중국미술관에서 조부 남승 허진 선생과 ‘수목별미’ 전시에 초대받았고 한국작가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미술평론가 1세대인 오광수 선생의 미수 기념집에는 ‘목시’와 ‘동물’, ‘익명인간-생태순환도표’,

‘익명인간-여로V’, ‘이종융합동물+유토피아’ 등 대표작이 수록됐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과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우수상,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부), 제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용복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장을 맡고 있다.

이외에 국무총리 표창(최우수상)에는 김준엽 시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에는 문학부문 조소현, 음악부문 이지원, 미술부문 좌경진, 대중예술부문 김희랑씨 등이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신인상에는 임선균, 장한아버이상에는 정화심, 공로 육성부문에는 박지영, 공로 지원부문에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공연리뷰

광주시립창극단 ‘愛(애)춘향’을 보고

전통 창극에 현대 미장센 더한 실험 무대

절제된 감정 속 ‘사랑의 미학’ 선사
장치 최소·여백 극대화 상상력 자극

널리 알려진 춘향전. 전통은 계승하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무대로 관객들을 만났다. 전통 창극에 무대 세트를 최소화하고, 현대 미장센으로 전통과 현대가 맞닿은 무대를 선사했다.

광주시립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창극 ‘愛(애)춘향’이 지난 7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베일을 벗었다.

이번 공연은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는 주제 아래, 전통 창극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무대 실험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무대에는 춘향의 집도, 남원 관아도 없다. 대신 무대를 가득 메운 것은 20여 개 그네였다.

전통 창극에서 보기 힘든 이 장치는 단순한 소품을 넘어 사랑의 설렘과 억압, 자유와 구속을 동시에 상징했다. 배우들이 그네에 앉거나 엮히는 동선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이 드러났고, 그네가 흔들릴 때마다 장면은 유려하게 전환됐다. 복잡한 세트 없이 관계의 긴장과 서정을 그려낸 연

출의 상상력이 돋보였다. 출연진들이 모두 앉아 북을 두드리며 어사출두 장면은 소리와 연출로 상상력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연출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 극은 절제된 호흡 속에 흐르고, 인물 간 감정선은 단정하고 고요하게 쌓였다. 춘향 역 배우는 맑고 단단한 소리로 첫사랑의 순수함을, 이몽룡과의 이별 장면에서는 애절한 한(恨)의 정서를 절묘하게 살려냈다. 과잉되지 않은 연기가 오히려 진한 여운을 남겼다. 춘향과 몽룡의 감정을 대변하는 정령의 몸짓 역시 불거리다. 흠어졌다 함께했다를 반복하며 보여준 무대 장악력은 둘 사이 관계의 설득력을 더했다.

변학도 역은 의상과 권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짙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딸을 향한 사랑을 절절하게 그린 월매의 연기는 일품이었다. 몽룡이 안행어사로 출두한 이후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 춤사위는 객석과 하나된 한 편을 보여줬다.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가로질렀다. 판소리 창법의 기본 틀 위에 팀파니 선율을 엮어, 고전의 울림 속에 현대적 감성을 담았다. 서

양음악의 선율을 정교하게 맞물리며 시대를 넘어선 감정의 공명을 이끌어냈다. 사랑의 비애와 운명적 인연 등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조명과 영상의 사용도 절제됐다. 붉은 조명 아래 그네가 느릿하게 흔들릴 때는 욕망과 분노가, 푸른 빛 속에서는 회한과 용서가 겹쳤다. 대사보다 이미지로 감정을 전달하는 연출의 미학이 탁월했다. 무대 전체가 단출하면서도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색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정서를 풀어냈다.

중·장년층 관객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전통의 형식을 고수하면서 시각적 완성도를 높인 덕분이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이번 작품을 통해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시각적 은유로 풀어냈다. 소리의 전통 위에 무대의 혁신을 더한 이번 공연은 지역 창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보하며, 전통 창극의 현대화를 모색한 시도였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립창극단이 지난 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 제62회 정기공연 창극 ‘愛(애)춘향’ 커튼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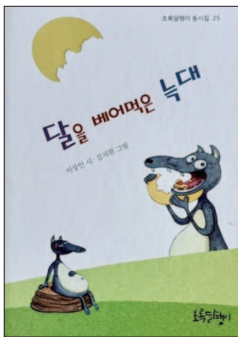
한층 더 깊어진 시적 관찰과 서정의 시각

‘달을 베어먹은 늑대’ 교육자 출신 이상인 시인 동시집 펴내

시와 동시를 넘나들며 창작활동을 해온 교육자 출신 이상인 시인이 지난 해 여섯번째 시집 ‘불속 불행두꽃이 피었다’를 펴내며 이어 두번째 동시집 ‘달을 베어먹은 늑대’(초록달팽이)를 펴냈다.

2022년 펴낸 첫 동시집 ‘민들레 편지’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시인은 아이들의 꿈과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반면, 제목부터 감각적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이번 동시집에는 교장으로 지난해 2월 정년 퇴임한 후 바라본 세상 풍경과 평생 교단에서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만큼 그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로 터버트 벅 걸어들어간다. 그냥 무심한 척 하면서 아무런 말없이 무뎠던 표정으로 들어간 시인에게서 아이들에 대한 그윽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편들은 그가 교단을 떠난 후 펴낸 첫 번째 작품집이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통해 얻은 사색의 자유를 한껏 깊어진 시적 속수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다면 ‘바다 세탁기’는 제목에서부터 궁금궁을 자아낸다. 시인은 ‘정말 세상에서/가장 큰 세탁기 한 대/누군가 자동 버튼을 눌렀나./비비고 돌리고 문지르고/주무를 때마다/비



누 거품 같은 흰 파도가/거세게 밀려온다//드디어 빨래 시간이 다 되어/전원이 꺼진 바다 세탁기//잔잔한 수평선에/감청색 옷 한 벌/탈탈 털어놓았다’고 노래한다. 그의 한층 더 깊어진 시적 관찰과 서정의 시각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이번 동시집은 ‘바다 세탁기’와 ‘다 먹었다’, ‘운동장의 품’, ‘두리둥실’ 등 제4부로 구성됐으며, 분주한 일상 틈틈이 동심을 어루만져온 작품 50편이 수록됐다.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오늘도 여기저기에 예쁜 동시들이 장난치며 놀고 그 동시를 잡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면서 “더불어 맑고 아름다운 동시 같은 세상을 그려보며 깊은 꿈을 꿔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자 출신인 이상인 시인은 전남 담양 출생으로 1992년 ‘한국문학’ 신인작품상에 시가, 2020년 ‘푸른사상’ 신인문학상에 동시가 각각 당선돼 등단. 시집 ‘그 눈물이 답을 키운다’, ‘톡, 건드려 주었다’, ‘UFO 소나무’, ‘연둣빛 치어들’, ‘해변주점’, 첫 동시집 ‘민들레 편지’ 등 다수를 출간했다. 숭문학회상과 우송문학상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 성평등 도약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여성가족재단 정책포럼, 14일 DJ센터…성역할 고정관념 제고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11~312호에서 ‘제29차 광주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광주지역 성평등수준 도약을 위한 통합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광주지역의 성평등 수준 역량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및 사회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성 돌봄 영역, 여성 관리자 비율 및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발제에서는 2024년 광주지역 성평등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국내 남성 돌봄 참

여 및 성평등 정책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광주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한다.

이어 2부 토론에서는 남성 돌봄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를 통한 성평등한 조직 운영 방안과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과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계획이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이번 정책포럼이 광주지역 성평등 수준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돼 광주시민 모두가 더욱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단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